

# 광장으로 나온 보수...주말 촛불집회 앞두고 총결집

## 보수단체 '조국 규탄' 광화문 집회

보수를 표방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한글날인 9일 오후 1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1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단체다.

전 대표는 "(집회참가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며 "1400여개 시민단체와 학계·종교계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승례문 앞까지 약 1.7km 구간을 차지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 1가 방면, 서대문 방면으로도 진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집회에 참석했지만, 무대에 올라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 광장 북단~승례문 1.7km 통제

### 황교안·나경원은 무대 안 올라

### 여의도선 '조국 지지' 집회 열려

조국(장관)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부정 입학, 재산 '빼돌리기'가 보도되는데 법무부 장관 말이 되는가. 문 정권은 조국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6월 항쟁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였다. 국론은 조국을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상은 (사위)하는 데 왜 대한민국은 못 하겠는가. 다 같이 10월 항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10월 혁명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종교, 남녀노소, 지역을 뛰어넘어 태극기로 하나 돼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야 한다"고 외쳤다.

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4시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등의 구

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앞서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이날 정오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조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조롱하는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배부 퍼포먼스를 했다.

여의도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도 열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참여 문화제 '우리가 조국이다'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3000명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윤석열 파면' 등 이적인 스티커를 들고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조국(장관)이 사법 개혁의 책임자"라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적절한 제재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도중 조 장관이 '홀로 아리랑'을 부르는 영상이 무대에 상영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573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공연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일제강점기 한글 지켜낸 민족정신 되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한글날인 9일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면서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

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면서 "머리맡에 깔고 자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면서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고 배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이라며 "1945년 무려 78%였던 문맹률은 13년이 지난 1958년 4.1%로

줄었고 글을 깨친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어학자들이 묵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주시경 선생의 글꼴을 이용해 한글날 메시지를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알릴레오' 김경록 차장 녹취 공개 파문 확산

### 검찰·KBS 유착 의혹 제기

### KBS "허위사실 유포"

### 유시민 "팩트 확인 왜 검찰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 차장은 당시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가 사기 피해자이며, 조 장관이 자택 PC 교체와 관련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일상적인 차원의 인사말임에도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변질됐다는 주장을 폈다. 김 차장은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에 내려가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이 유리한 것은 찾고 불리한 것은 뺀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그때부터 눈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김 차장이 지난 8월 28일 조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뒤 조 장관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날 (조 장관이) 퇴근하면서 제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났다"며 "2014년부터 (조 장관을) 3~4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검찰과 언론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말하면 곧바로 기자들에게 이를 확인하는 전화가 쏟아지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검찰과 언론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황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자신이 KBS 법조팀과 한 인터뷰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 컴퓨터 화면 대화창에 '인터뷰를 했다던데 털어봐', '조국 김경록 집까지 왔다던데 털어봐'라는 내용을 봤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의 5촌 동생 조병동 씨를 사기꾼으로 생각하면 그림이 단순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조씨가 도망을 갔는데, 이걸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 먹었을 때"라며 정 교수가 피해자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교수가 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400만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안다. 조씨가 진짜 영어사업을 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이번 인터뷰가 지난 3일 김 차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1시간 30분가량의 녹취 중 20분가량을 공개했다. 검찰은 유튜브 방송이 끝난 뒤 해당 내

용을 즉각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후 방송되었다"고 말했다.

KBS도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BS는 "인터뷰 직후 김 차장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찰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고, 인터뷰 다음날인 지난 9월 11일 '9시 뉴스'에 2개의 기사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 KBS의 반박에 대해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명해야지 이게 뭐냐"고 재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그것은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그냥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자르고 원래 이야기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 데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는 데 대해서도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나. 피의자가 광장히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신의 징벌인가... 불통·불신만 가득한 세상



### 김은영의 '그림 생각' (284) 바벨탑

높고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들의 오만한 행동에 분노한 신이 내린 벌은 하나였던 언어를 여럿으로 가르키는 것이었다. 같은 언어로 소통했던 인간이 언어가 달라져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불신과 오해 속에 갈등하고 싸우다 마침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수많은 언어와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각기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우고 있어 가혹한 신의 징벌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해야 할 말만 생각하느라 타인의 말을 경청하거나 귀 기울이는 모습은 간데없고 불통과 불신만 가득하다. 단군 이래 이토록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적이 없는 이 나라의 앞날이 염려된다.

피터 브뤼헬(1525-1569)의 '바벨탑' (1563년 작)은 구약성서 창세기의 바벨탑에 관한 일화를 그린 그림이다. 광활하고 거대한 도시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탑을 건설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하늘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가히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란 듯이 펼쳐 보이려는 현상이다. 원뿔 하단에는 탑의 건설을 명령했 왕의 일행과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석공들의 모습이 보인다.

중앙에 자리한 바벨탑 건설현장에는 기둥기와 도르래, 사다리, 석재더미 등이 분주하고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먼



피터 브뤼헬 작 '바벨탑'

곳에서 건축자재를 싣고 왔을 것이다. 거대한 바벨탑의 어마어마한 규모는 개미처럼 보이는 일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대비된다. 그림 속 바벨탑은 높이높이 솟아오르면서 동시에 밑동 아래쪽 부분이 헐리고 무너지고 있다. 곧 위험하고도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향한 신의 경고가 내려질 것만 같다.

피터 브뤼헬은 16세기 플랑드르 대표적인 화가로 플랑드르 지역의 풍속과 농민들의 생활을 주로 그리면서 인간 삶의 속의 희비극을 풍자하기도 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 산티아고 순례길

11/9, 16, 23 11월 단 3회 출발

산티아고 떠나는 가장 빠른 길!  
국내최초 대한항공 산티아고 특별전세기

**롯데관광만의 특별한 할인혜택!**

**5% 할인 + 10만원 할인(4명 이상)** \*10/15까지 예약시

**48년의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만의 특징**

- 전일정 4성급 호텔**  
알베르케 숙박 X
- 전문 인솔자 동행**  
순례길 전문 가이드
- 항로미사 참석**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 전용차량 대기**  
배낭없는 편안여행

**순례길 체험+관광 4일 걷기**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북부 8대도시] **9일 정통 3,799,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루고/오비에도/산티아고

**'제주올레'의 설계자 서명숙 이사장과 함께하는 도보여행** 11/23 [단1회] 순례길 5일 걷기 산티아고 순례길 + [스페인 4대도시] **9일 정통 3,899,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없음 • 산티아고/목시/피니스테레

**특별한 여행지** 스페인 북부 완전일주 (빌바오+산세바스티안) **9일 정통 3,899,000원** \*90유로 | 선택관광 있음 • 리스본/산티아고/피니스테레

가견포함내역: 크루즈 선실료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 부분은 현지에서 지출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지세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보단계] ●여행유/ ●여행자재 / ●항공권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c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지]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여행경비는 여행객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일반여행업 제4678(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 ●일반여행업 영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업 실적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관련자리센터: 1589-8992 ●여행보험: 부산형/속초형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용(일부객실 제외) ●교통편: 항공, 버스, 크루즈(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